

PHOTO ESSAY

행복

행복은 존재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삶에 초대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만들어진다.

– 테레사 프레이리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TI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Brief
KOTI
May 2018 / VOL.10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인 오재학
기획 공항소음분석센터 ISSN 2384-2768
www.koti.re.kr

공항소음브리프



소음이 아닌 소리가 함께하는 환경 만들기

통권 10호

사람과 공간 ..0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김완중

말과 말 ..04
김포공항 강서구 주민 박인석
김포공항 양천구 주민 김월수
김포공항 구로구 주민 김나영
김포공항 김포시 주민 신명진
YOU IN LAW 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인호
김포공항 부천시 주민 설효성

Human & Space ..16
Seoul Regional Office of Aviation of MOLIT / Administrator
Kim, Wanjoong

편집장의 말 ..18

숫자로 보는 소음 ..19

발행인 오재학 **편집인** 항공교통본부 공항소음분석센터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www.koti.re.kr
편집위원 한국교통연구원(송기한, 신홍우, 정민주, 김지선) **작가** 임영현
디자인·제작 김영자, 송용관 **인쇄** 경성문화사
〈공항소음브리프〉는 비매품입니다. 구독 신청 및 문의는 airportnoise@koti.re.kr 또는 044-211-336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 사진, 삽화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KOTI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INTERVIEW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주력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공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장
김 완 중

INTERVIEW

항공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항은 국가기간 교통망을 구축하는 교통시설로 국가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국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항공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수요 증가에 따라 취항하는 항공편이 늘어날수록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커집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항 활성화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정부도 공항 운영에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확대 시행, 소음대책·주민지원사업 예산 확충,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녹지 조성, 건강 증진을 위한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2017년 6월 소음대책지역 면적을 약 110만㎡ 확대하고 가구 수도 약 9,880호를 추가 편입함에 따라 올해 460억 원을 투입하여 주택 방음·냉방시설 설치,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을 위한 복지·편의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 공항 소음 저감,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활주로 말단 지역에 대체녹지 약 26만 5,000㎡를 조성하고 그 속에 산책로, 편의시설,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등 7개 지자체 1,920명의 주민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폐막식 행사에 초대하는 등 지역 주민과의 유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공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음 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공항 관련 사업 지역 주민 참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소음대책지역 및 직접보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대책사업 효율성 강화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전기료 지원 확대,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수, 토지보상 매수지역 확대 등 지역 주민과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건의한 정책적 요구사항들에 대하여 법률 개정 검토 등을 통해 항공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호주 울런공대 대학원 졸업.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과장,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와 재산상 피해

김포공항 강서구 주민 **박 인 석**

> “현재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 소음피해 보상만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
> 재산상 피해도 보상해주기를 바랍니다.
> 기업과 국가가 근본 대책 마련에
> 나서 줄 것을 요망합니다.”

국가가 적극적 대응책을 세우고 기업이 상당한 정도의 보상에 나서도록 독려하며 국가도 재원을 지원하여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3남매를 거느리고 살아온 76세의 평범한 주민입니다. 1978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셋값이 치솟아 전세금이 싼 지역을 찾아 영등포에서 이곳 공항 주변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50 평생을 살았습니다.

신월동, 오세동, 공항동으로 이사하면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인생에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이사 와보니 비행기가 뜰 때마다 비행기 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지나가고, 비행기 소리가 고막이 터질 정도로 울리고 텔레비전 화면도 마구 흔들렸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1·3·5세였는데 비행기 소리가 날 때마다 자지러지게 놀라는 모습을 목격하고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아이들도 적응하고 어른들도 적응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비행기 소음피해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자라나는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줄 정서적·교육적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INTERVIEW



이곳은 비행기 소리로 인하여 집값은 물론 전세가격도 서울시에서 가장 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못사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모여 사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은 약 70% 이상이 낡은 불량 주택 지역입니다. 재개발을 하려 해도 항공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할 수 없습니다.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은 슬럼화하고 주거환경은 아주 열악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집값,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민의 재산상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지에는 어림잡아 40~50만 명이 공항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주민이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마땅히 보상 책임은 실질적 이익을 누리는 항공사와 공항을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국민복지의 책무가 있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적극적 대응책을 세우고 기업이 상당한 정도의 보상에 나서도록 독려하며 국가도 재원을 지원하여 좋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를 통하여 소음피해만을 대상으로 방음창 설치, 공영방송수신료 지원, 냉난방시설 전기요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대상 지역과 대상 주민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과 대상 주민 선정방법을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피해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자체 내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과 보상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보상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배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못 이겨 주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임시 땜질식의 근시안적 한국공항공사 보상정책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 측의 성의 있는 보상과 정책을 위한 주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하면서 3가지 안건을 제안합니다.

첫째, 항공기 이착륙 시간의 축소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과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등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은 같은 고통을 겪고 사는 주민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는 항공사 상호 간 이해관계에 얽혀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배려하기보다 항공사의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항공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항공기 이착륙 시간의 축소,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상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우선 취업보장을 제안합니다.”

이착륙 시간을 결정하는데, 인간의 숙면과 휴식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숙면과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의 이착륙 허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둘째,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보상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에 비해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도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심지어 지속적인 생활자의 경우 난청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소음차단을 위한 주택의 이중창 설치 지원과 월 5만 원 이내의 전기료 보전정책이 생색내기식의 보상임을 인지하면서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정책을 근시안적 처방의 수준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더욱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상정책으로 항공기 소음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청정산업 또는 첨단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 공항공사의 수익금과 토지개발 이익금 전액을 이주대체지에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이주계획을 제안합니다. 또한 매년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인색한 지금과 같은 정책과 보상의 방법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셋째,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우선 취업보장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생활여건이 보다 좋은 곳으로 이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날이 갈수록 낙후지역으로 변해가는 이유입니다. 만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을 청정산업 또는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항공기 소음으로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기능을 부활시켜 도시재생사업도 병행한다면 더 이상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사는 동네가 아니라 오히려 명품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과 공생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공항공사가 수익금의 전액을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재투자함으로써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인색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보상으로는 소음구역 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가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영업이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피해지역 내 주민을 위한 문화 사업을 하여 피해주민들의 정서를 달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그 외 피해가 누적된 장기 거주자에 대한 일정 금액의 위로금 지급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공항 인근 주민들의 노력으로 머지않아 고도제한이 풀린다고 하니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되어 신도시로 탈바꿈하면 많은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입니다. 국가가 성의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면 주민들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포공항 양천구 주민
김 월 수



김포공항 구로구 주민 **김 냐 영**

실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 입는 주민에 대한 대책 필요

시행 중인 보상정책 점검과 함께 현장탐사를 통한 소음피해 지역의 확대 지정을 요구합니다.

> “항상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공항과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항공기 소음의 피해를 겪는 지역입니다. 밤, 낮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일의 휴식마저 빼앗기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는 갓난아기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원래 갓난아기가 예민한지, 그 아기가 유난히 예민한지 모르지만 비행기 소음이 있을 때마다 울고불고 난린 통에 이웃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 신혼부부는 얼마나 죄송스럽고 민망할까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방음창·방음벽 지원이 어느 지역까지 시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지원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해 지역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우리 동네를 포함하여 여러 군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금 시행 중인 여름철 3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책정된 건지 의문입니다. 한여름 30도가 넘어가는 더위에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조차 못 여는 현실인데, 한 달에 겨우 5만 원 지원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건의합니다.

첫째, 실제 항공기 소음을 겪고 있는 지역을 기존 선정된 지역 말고도 그 주변 지역을 방문 조사하여 소음 정도를 파악하고, 그 범위를 더 확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방음창과 방음벽 등 지원 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둘째, 한여름 소음피해 지역이 아닌 가정의 평균 전기사용량을 측정하여 그에 맞는 전기사용료를 책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현안을 자세히 검토하여 주차장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 힘내세요!



한국공항공사·지역 주민 상생 노력이 필요할 때

한국공항공사와 지역 주민은 삶의 질 향상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처해야 합니다.



> **지역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임한다면 공항지역이 갈등의 지역이 아닌 주민과 공항공사가 상생하는 활기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음은 사람 삶의 질 저하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 주변의 소음여부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판단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소음이 없는 조용한 생활환경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주민보다 공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음에 관한 한 삶의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항 인근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게 되므로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개별적·물질적 보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항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쇼핑몰, 체육시설, 위락시설 등 생활 편익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항 인근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항공기 소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뒤지지 않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하고, 주민이 공항지역에 살고 있어 타 지역에서 살 때 보다 편하고 좋아졌다는 인식이 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할인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공항 인근에 살고 있어 항공기 소음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항공과 관련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부동산 가치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공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병원시설, 공원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연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켜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며, 공항 지역의 주거지 선호도가 높아져 공항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이미 항공기 소음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지역이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공항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한 장점을 살려 나의 주거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공항공사와의 소음피해 대책 문제에 동반자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문명에서 항공운송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항공기 소음이라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갈등이 바로 공항공사와 인근 주민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에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임한다면, 공항 지역이 갈등의 지역이 아닌 주민과 공항공사가 상생하는 활기찬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포공항 김포시 주민
신 명 진

INTERVIEW

공항 소음은 곧 건강권 침해의 문제

YOU IN LAW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 인 호**

유인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 전공. 독일 뮌헨대학(LMU-Munchen), 이탈리아 볼로냐대학(Universita di Bologna)에서 EU환경법 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로펌 LIM&RUGER를 거쳐, 현재 한국 YOU IN LAW 법률사무소에서 금융·기술·환경·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착륙료를 보다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음피해의 유형 중 하나인 교통 소음은 다른 유발원(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과 달리 직접 일으키는 교통수단마다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손해와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교통소음이 '공공 일반의 이익에 제공'되는 도로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공해의 해결은 그 유발원 자체를 제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쉽게 제거

> “공항 소음(항공기 소음)의 문제는 그 자체로 인간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 못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수, 고강도의 특성이 있어 짧은 노출 시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공항 주변 토지와 건물의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키고, 각종 질병 치료와 노동 생산성 저하 등으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그 유발원인 공항 자체를 폐쇄하거나 이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항의 유치를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건강 영향에 대한 인식, 즉 건강권 침해로서의 문제는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소음(항공기 소음)의 문제는 바로 건강 침해의 문제로 보아 탄소 배출 규제나 미세먼지 배출 규제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며, 소음피해를 야기한 피해의 정도와 양, 지역 주민의 건강과 맞바꾸어 얻게 된 수익(영업이익), 재발 방지(저소음비행기 도입)를 위한 적정한 징벌적·유인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부담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징수하여 그 재정을 오직 인근 주민의 건강권·재산권 향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의 논의가 있지만, 이미 그 기준이 되는 착륙료(공항소음법 제17조 제1항은 ‘착륙료의 3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는 불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입니다.

소음 유발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구별할 실익이 없음에도 소음 유발과 전혀 무관한 착륙료 기준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그마저도 최고 구간이 30%에 불과하므로, 이를 보다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INTERVIEW

지원사업 홍보와 아이들 의견 수렴 분위기 조성

어른, 아이 모두
항공기 소음피해의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김포공항 부천시 주민 **설 효 성**

김포공항과 인접한 고강동은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하늘길 아래 자리 잡은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TV로 보는 비행기보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 시기를 지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비행기는 소음의 원인일 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비행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하던 말씀을 멈춥니다.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수업이 잠시 중단됩니다.

또한 비행기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땀이 뻘뻘 나는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보고 있던 TV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강동 주민들은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상관없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지원사업의 폭을 넓혀주시고, 지역사회 어른들의 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 청소년의 의견에도 관심을 두시고, 학생들 역시 소음에 피해를 받는 직접적인 지역 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희망합니다.”



첫째, 현재 공항에서 시행하는 또는 앞으로 시행할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복지시설과 연계해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앞으로 할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알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주세요. 이와 함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항공기 소음피해의 대상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희망합니다.

셋째,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활동 체험뿐 아니라 공항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처럼 공항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항공기 관련 직종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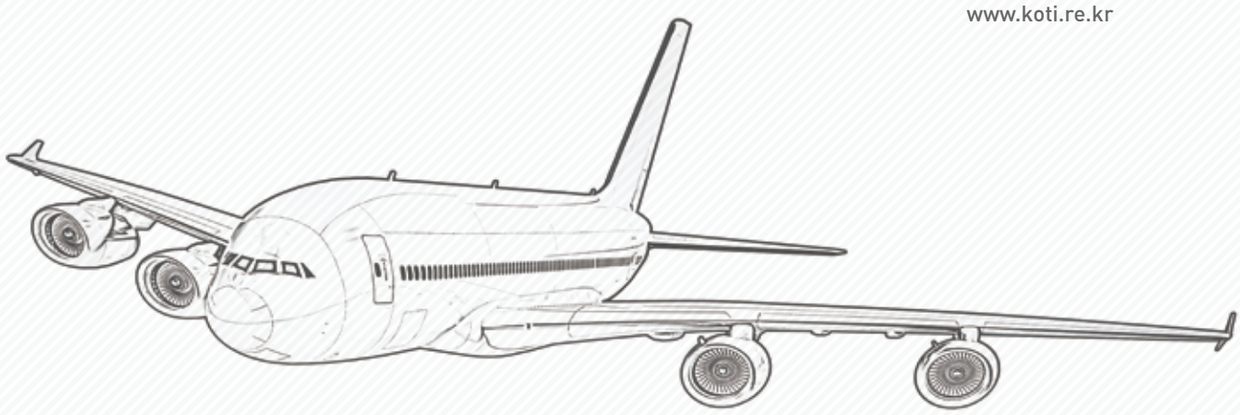
Need to strengthen relations and to form consensus with local resident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ound of Gimpo International Airport



The airport as a transportation facility which builds the national transportation network, it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national industry. As the economy grows and the number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ers increases, the demand for air travel continues to increase along with them. However, the more the number of flights to and from the airport increase, the more aircraft noise affects on the residents' everyday lives near the airport. In order to solve aircraft nois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communicate with residents, and we always think that airport development should not be promoted without concensus with local residents. Fortunately, the present government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ies which boost the welfare and creat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near airport in oper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poses to intensify the public role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network as a national agenda. In order to ensur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to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affected by aircraft noise, Seoul Regional Office of Aviation pushes ahead with expansion of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against noise,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incurred in Airpor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creation alternative green areas and sports facilities for creating a pleasant and healthy living

Seoul Regional Office of Aviation of MOLIT
Administrator
Kim, Wanjoong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In June 2017, Gimpo International Airport (GMP) expanded the scope of countermeasures against noise; the land area by about 1.1 million ㎡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by about 9,880. Accordingly, 46 billion won was supported this year, which lead proceeding the projects such as installing soundproof facilities and air conditioners, subsidizing electricity costs of air conditioners for residential purposes in summer and installing facilities for welfare and convenience of the residents etc.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airport noise, creat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improve health of residents around GMP, an alternative green space of about 265,000 ㎡ was built at the end of the runway. In that space, trails, convenience facilities and resident sports facilities would be built by private investments.

In particular, this year, we invited 1,920 residents from seve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Yangcheon-gu, near GMP, to the closing ceremony of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in order to strengthen ties with residents of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against noise of GMP. We will strive to find ways that can broaden understandings of airport and see the mutual benefit.

In addi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ound in the process of Airpor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 and Resident support project, encourag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the airport-related projects, create jobs for the residents, expand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against noise and enlarge the range of direct compensation, "Research for enhancing efficiency of airport noise countermeasure projects" to be conclud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operate a consultative group with the committee on countermeasures against airport noise in order to listen to the difficulties and opinions of the residents. Residents and civil members of the committee suggested increasing in subsidies for electricity costs, promoting Resident support projects through purchase of land and expanding land subject to purchase.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bring real benefits to the residents affected by the aircraft noise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based on those requirements.



편집장의 말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2018년 새해를 맞이하고도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도 소음과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공항 인근 주민분들을 생각하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연구에 증진하여야겠다는 무거운 짐을 느낍니다.

본 통권 10호는 김포국제공항 특집 편으로 구성하여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박인석 님, 김나영 님, 신명진 님, 김월수 님, 설효성 님을 포함하여, 서울지방항공청 김완중 청장님과 유인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수행의 바쁜 일정 속에도 <공항소음브리프> 발간을 위하여 노력하여 준 연구진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창간호부터 추구한 초심을 항상 잃지 않고, 지속해서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인터뷰를 함께 수행하며 사진과 원고 작성에 도움을 주신 임영현 작가님과 디자인 및 인쇄 작업 전반에 참여하여 주신 김영자 팀장님과 송용관 부장님께도 본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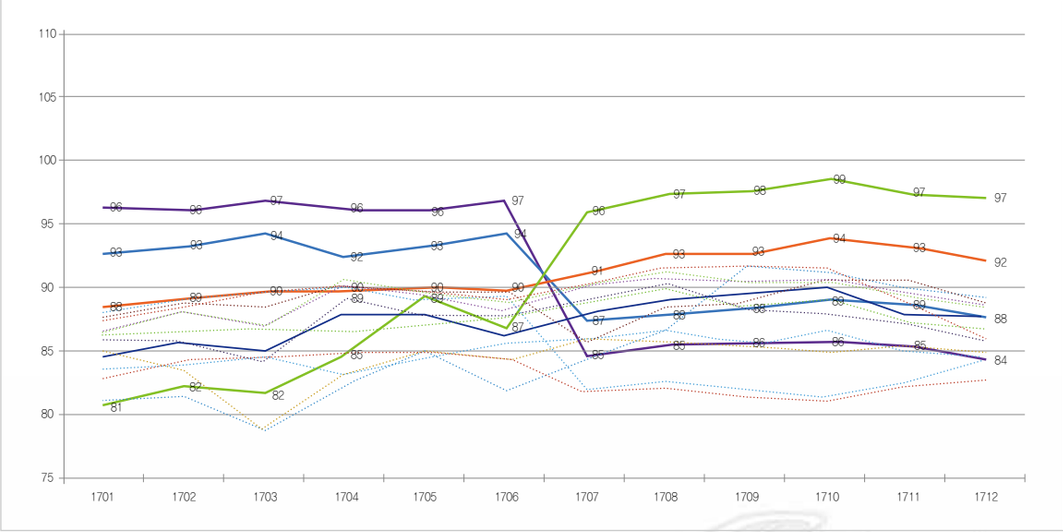
언제나 <공항소음브리프>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교통연구본부장/공항소음분석센터장 송 기 한

2017년 김포공항 소음통계 자료 분석

본 호에서는 2017년 김포공항의 소음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지수 결과와 시사점으로 구성하였다. 2017년 김포공항의 총 운항횟수는 14만 5,507회로, 6개 공항소음대책지역 공항 중 약 18.4%(총 79만 회)를 차지하였다. 2015년 기준(해당연도 100) 시계열 자료를 살펴보면 2, 11, 12월을 제외한 전반적인 운항횟수가 증가(O.C〉100)하였으나, 추세선 분석에서는 3강2중1약으로 구분되어 정체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요인 : 사드 여파, 국적사 운항노선 다양화, 제주노선 증가). 월평균소음 분석에서는 전년 대비 월평균소음 누적률(%)의 경우 #9(신원초)지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2(신남초), #13(신남중)지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소음지수 추이〉



자료 :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및 공항소음정보시스템 자료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 접수된 동 기간 중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82건으로 이중 항공기 소음 불만으로 접수된 민원은 약 2~3% 이었으며, 대부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였다. 월별로는 11월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10~12월 중 접수된 민원이 약 83%로 집중되었다.

- 동 기간 중 항공기 운항횟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10월 중 운항횟수가 고점군을 형성
- 소음지수준수율과 비교하여 항공기 소음발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음에 따른 노출이 높음
- 2017.6.30 김포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해당 가옥 확대에 따른 민원 증가로 기인(전기료 지원 및 냉방시설 설치 포함)